

# 우리말 한자 인명 로마자표기에 관한 연구\* \*\*

양병선

(University of Washington/전주대학교)

**Yaang, Byung-sun. 2003. A Study on How to Write Sino-Korean Personnel Names with Roman Letter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4), 101-122.**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o write Sino-Korean personnel names with Roman letters based on English spelling and pronunciation. In this paper, analyzing Korean family names written with Roman alphabets, I investigate the ways in which English words are pronounced and spelled in mono-syllabic words, and propose that Sino-Korean personnel names should be written in a way that reflects English pronunciation and its writing system. Also I propose how to write 482 syllables for Sino-Korean personnel names with the English alphabets.

**주제어(Key Words):** 로마자 표기법, 인명로마자 표기, 음절단위 영자표기

## 1. 서론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에 의해 개정·고시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관부 2000)에 의하면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도록 하고, 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름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이름의 음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하기로 하였다(제3장 제4항). 또한 회사명, 단체명을 포함하여 인명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제3장 제7항) 명시하였다. 이는 성을 포함한 이름 표기의 경우 표기법 원칙대로 따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며(정희원 2000) 일반인이 관

---

\* 본 논문은 2003년도 전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본 논문은 University of Washington 언어학과 객원 연구원 (visiting scholar)으로 있는 동안 작성되었으며 2003년 대한언어학회 봄 학술대회(순천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 한 것임.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해 도움을 준 University of Washington 언어학과 교수들과 자문에 응해준 대학원생들,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분들과 익명의 심사위원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기를 인정함으로써 융통성을 부여하여 실제생활의 편익을 고려하였다(권재일 2000)고 할 수 있다. 현행 표기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국립국어연구원은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안’을 마련하고(김세중 2001) 2001년 6월 20일 국립국어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양병선(2002)에서 영어 발음과 철자를 기준으로 하는 ‘성씨 로마자 표기’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크레딧카드나 여권, 인터넷 등에서 인명표기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있는 현실에서 성씨와 이름이 각각 다른 표기법에 의해 표기된다면, 로마자 표기를 통일시키고 정보 검색 등이 편리해져 정보화 사회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위해 (문관부 2000: iv) 로마자표기법을 개정한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양병선(2002)에서 제안한 영어철자와 발음을 기준으로 한 성씨 로마자 표기를 기본으로 하여 성씨와 이름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음절단위 우리말 한자 인명 로마자 표기를 제안함으로써 현재 각양 각색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인명 로마자 표기를 통일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제2장은 한자 인명의 특징과 음절에 따른 분석을 하고 로마자표기의 실태를 성씨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제3장은 로마자표기의 목적, 정의, 주체성 등 인명 로마자 표기 시 고려하여야 할 점을 알아본다. 제4장은 영자를 기준으로 하는 로마자표기의 반론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유만근 2000, 권재일 2000) 영어발음과 철자의 불규칙성에 대해 영어단어 1음절어를 분석하여 영어철자와 발음간의 체계성을 제시하며 제5장에서는 영어발음과 철자에 근거하여 한자인명로마자 표기를 제안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 가름한다.

## 2. 우리말 한자 인명의 특징과 로마자 표기 실태<sup>1)</sup>

### 2.1. 한자 인명의 실태 및 특징

우리말 한자 이름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해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라면 지어야 출생신고가 접수된다. 한자와 한글을 혼합한 이름은

---

1) 우리말 인명에는 한자 이름 이외에 순수한 토박이말로 된 한글이름이 있다. 따라서 순수토박이말 한글이름의 로마자표기도 제시하여야 하나 본고에서는 한자인명만을 다루기로 한다. 한글 이름의 로마자 표기에 대해서는 양병선(준비중) 참조.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117자를 추가하여 2917자를 인명용 한자로 제정하여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1994년 9월 1일 108자를 추가하였으며 1997년 12월 2일 1,239자, 2001년 1월 4일 1,755자가 추가되어 현재 인명용 한자는 모두 4,794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한자와 상관없이 한글의 음으로는 190개의 성씨를 포함하여<sup>2)</sup> 총 482자가 인명에 사용되고 있다.

한자인명에 사용되는 482자에 사용되는 모음은 한글 표준어의 모음 21개 중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의 단모음과 ‘ㅘ ㅙ ㅚ ㅜㅛ ㅝ ㅞ ㅟ ㅠ ㅡ ㅢ’의 10개 이중모음이 사용되며 이중모음 ‘ㅢ’는 사용되지 않는다.<sup>3)</sup> 단모음의 경우 ‘ㅏ’(58음절), ‘ㅘ’(6음절), ‘ㅓ’(35음절), ‘ㅕ’(30음절), ‘ㅗ’(51음절), ‘ㅛ’(7음절), ‘ㅜ’(34음절), ‘ㅠ’(11음절), ‘ㅡ’(29음절), ‘ㅣ’(24음절)가 인명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중모음은 ‘ㅘ’(24음절), ‘ㅙ’(10음절), ‘ㅚ’(8음절), ‘ㅛ’(6음절), ‘ㅝ’(5음절), ‘ㅞ’와 ‘ㅟ’(4음절), ‘ㅠ’와 ‘ㅡ’(3음절), ‘ㅢ’(2음절)가 인명에서 사용되고 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은 총 68개이며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은 ‘아, 애, 야, 어, 여, 예, 오, 외, 요, 우, 위, 유, 의, 이’로서 14개 음절이 있다. 인명에 사용되는 음절중 자음을 분석하면 음절초에는 ‘ㄱ ㅋ ㄴ ㄷ ㄹ ㄴ ㄷ ㄴ ㅅ ㅆ ㅇ ㅈ ㅊ ㅋ ㅌ ㅍ ㅎ’ 16개의 자음(ㅇ을 제외하면 15개)만 나타나며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ㅇ ㅂ’ 7개의 자음만 나타난다. 즉 인명표기에서는 음절초에 나타나는 한글의 표준어의 자음 19개 중에서 ‘ㄸ, ㅃ, ㅆ’은 사용되지 않으며 받침에 쓰이는 자음 27자 중 두 자음으로 이루어진 받침과 ‘ㄸ ㅃ ㅆ ㅋ ㅌ ㅍ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sup>4)</sup>

2) 2000년 11월 1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 인구주택 총 조사’중 성씨 및 본관 집계결과(2003년 1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귀화인을 제외한 우리나라 성씨는 4,179개 본관 및 286개 성씨가 있으며 본관 및 한자에 상관없이 한글표기에 의한 성의 수는 183개이며 이 중 두 글자를 쓰는 성씨로는 ‘강전, 남궁, 독고, 동방, 망절, 사공, 서문, 선우, 소봉, 어금, 장곡, 제갈, 황보’등 13개이며 나머지 170개가 외자 성씨이다. 하지만 로마자 성씨표기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성씨표기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씨는 ‘나/라, 남/랑, 노/로, 양/량, 유/류, 이/리, 임/림’으로 이들을 별도로 표기한다면 총 190개의 성씨가 있다 (양병선 2002).

3) 한자인명에 사용되는 모음과 성씨에 사용되는 모음의 차이는 성씨의 경우 모음자 ‘ㅘ, ㅙ, ㅚ, ㅛ’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인명에서는 ‘ㅞ’는 ‘쇄, 췌’에서, ‘ㅟ’는 ‘의, 회’에서, ‘ㅠ’는 ‘쾌 췌 휘’에서 나타난다.

4) 이는 양병선(2002)에서 분석한 성씨의 자음과 거의 같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음절초에 ‘ㄸ’이 ‘꺨’, ‘ㅋ’이 ‘췌’에서 ‘ㅆ’이 ‘쌍, 씨’에서 사용되며 성씨의 받침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ㅆ’이 ‘꺨’에서만 나타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 2.2. 인명 로마자 표기 실태 및 특징<sup>5)</sup>

컴퓨터와 문명의 발달로 인해 국제화, 정보화, 지구촌시대가 도래하면서 거의 전 국민이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인명을 표기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 각양 각색으로 적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에 제정되었던 정부의 공식 로마자표기법(문교부 1948, 1959, 1984)에 따라 성씨를 표기하는 경우는 49% 정도뿐이 되지 않으며 다른 표기법도 비슷한 상황이다(서정수 1991, 김혜숙 1998). 여권의 인명 표기 가운데 ‘곽’씨의 로마자표기는 69가지나 되며, ‘이, 오, 우’씨 등의 경우 기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면 <i, o, u>인데 이렇게 적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극도로 혼란스러운 실정이다(김세중 2001). 이에 양병선(2002)에서 필자는 김세중(2001)에서 조사한 성씨의 로마자표기 실태를 중심으로 하여 성씨의 로마자표기 실태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자세한 것은 양병선(2002) 참조)

i)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로마자 표기법(MR 1939, 문교부 1948, 1959, 1984, 문관부 2000)에서 일관된 점은 모음 표기 시 단모음 ‘아, 에, 이, 우, 오’를 <a, e, i, u, o>로 대응시키고 나머지 단모음 ‘어, 으, 애, 외’는 2문자표기(문교부 1959, 문관부 2000) 혹은 특수문자(문교부 1948, 1984, 조선과학원 1956 - 북한안)를 덧붙여 표기하여 왔다. 이중모음은 단모음 표기에 반모음 y와 w를 앞에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따르기보다는 영어의 철자와 발음에 따라 모음을 표기하고 있으며 첨가기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ii) 네 차례의 정부공식 로마자 표기법(문교부 1948, 1959, 1984, 문관부 2000)에서 제시한 1자모 1표기의 원칙보다는, 성씨의 음절구조에 따라 각기 달리 표기하였다.<sup>6)</sup> 따라서 정부안의 로마자표기와 일반인의 인명표기가 다를 수밖에 없

---

5) 인명의 로마자 표기 실태에 관한 연구는 국립국어연구원(1996), 김세중(2001), 서정수(1991)가 있으며 국립국어연구원(1996)은 연합통신사에서 펴낸 Korea Annual 1996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인명표기에 관한 자음과 모음 표기에 관한 분석을 하였고 서정수(1991)에서는 언론매체, 학술논문, 연감 등에 나타난 인명 중 성씨의 로마자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김세중(2001)에서는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얻어 여권의 성씨표기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이 이외에도 독립신문에서의 인명로마자 표기방식(정경일 1999), 인명 로마자 표기 양상(정경일 1997, 김혜숙 1998, 2000) 등이 있다.

6) 모음자 ‘ㅏ’를 포함하는 성 37개 중 대다수의 성씨(최소 83% 이상)가 ‘ㅏ’를 <a>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 (park 97.3%), ‘아’ (ah 83.3%)는 다수가 기존의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안’ (ahn 39.6%), ‘반’ (bahn 4.5%), ‘탁’ (tark 7.5%), ‘마’ (mah 4.0%)의 경우도 다수는 아니다 할 지라도 기존표기법과 달리 표기하고 있다.

었으며 iii) 한 글자로만 표기하여야 하는 외자 표기는 하지 않으며<sup>7)</sup> iv)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 영어발음과 철자 그리고 영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영어의 어감이 좋지 않는 표기는 피한다.<sup>8)</sup> v) 자음의 특징으로는 성씨표기는 두음법칙을 적용치 않고 표기하는 경향이 있으며<sup>9)</sup> ‘ㄱ’의 경우는 대부분

모음자 ‘ㅣ’를 포함하는 성은 18개로 이 중 받침이 있는 성씨는 모두 92%이상 이 <i>로 표기하는 반면 받침이 없는 성씨인 ‘기’ (73.1%), ‘시’(89.2%), ‘지’(78.8%), ‘피’(66.4%)의 경우는 <i>로 표기하는 경향이 받침이 있는 성씨에 비해 떨어지며 지금까지 한번도 제안된 적이 없는 <ee>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의 경우는 98.4%가 <ee>로 표기한다.

모음자 ‘ㅛ’를 포함하는 성은 30개로 대체적으로 <o>로 표기하고 있으나 ‘ㅏ, ㅣ’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이며 모음자로 끝나는 성씨뿐만 아니라(예: 고, 노, 도, 모, 소, 오, 호), 받침이 있는 성씨(예: 손, 온, 오)에서 조차도 <oh>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예를 들면, 고 (koh 18.9%), 노(noh 40.3%, roh 16.2%), 도(doh 10.6%), 소(soh 11.5%), 손 (sohn 8.9%), 온 (ohn 27.8%), 웅(ohng 12.0%)의 경우이며 ‘오’는 96.2%가 <oh>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영어의 경우 <o>가 /a, ɔ, ow, ʌ/로 다양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우리 음에 근접한 <oh>로 표기하려는 경향 때문인 듯하다.

‘ㅜ’를 포함하고 있는 성씨는 19개로서 거의 모든 성씨에서 <oo>의 표기법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이러한 예는 구(koo 57.7%), 국(k/gook 58.6%), 궁 (koong 45.0%), 두(doo 75.4%), 문(moon 84.0%), 부(boo 80.0%), 순(soo 93.7%), 우(woo 98.1%), 운 (woon 100%), 유 (yoo 50.1%), 육(yook 38.7%), 윤(yoon 63.3%), 주(joo 60.0%), 추(choo; 54.1%) 등을 들 수 있다.

모음 ‘ㅑ’와 ‘ㅓ, ㅕ’를 포함하는 성씨는 35개에 달하며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채택된 적이 없는 <u>의 표기가 <eo>의 표기보다 우세하다. 권(kyun 48.9%), 경(kyung 72.8%), 명(myung 68.3%), 범(bum 53.2%), 변(byun 77.1%), 석(suk 46.4%), 선(sun 74.6%), 선우(sunwoo 77.9%), 섭(sup 75.0%), 성(sung 77.7%), 정(jung 48.9%), chung 20.4%), 천(chun 60.3%), 편(pyun 62.8%), 평(pyung 53.8%), 현(hyun 92.1%), 형(hyung 61.6%)의 경우이며 모음으로 끝나는 성씨인 서(suh 18.5%), 어(uh 13.2%), 허(huh 15.7%)의 경우는 <uh>로 표기하는 경향도 있다.

7) 예로서,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이, 오, 우’씨는 <i, o, u>로 표기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한번도 공식적으로 제안된 적이 없는 이(lee 98.4%), 오(oh 96.3%), 우(woo 98.1%)로 표기하고 있다.

8) ‘ㅍ’을 <b>로 표기하는 것이 우세하나 ‘박’을 <park>(97.3%)으로 표기하는 것은 ‘bark’이 영어의 의미가 좋지 않기 때문이며 ‘ㅅ’의 경우는 <s>로 표기하는 것이 절대적이거나 모음 ‘ㅣ’앞에 ‘ㅅ’이 오는 경우에는 <s>보다는 <sh>로 표기하는 것이 우세하다(예: 시 si(57.1%)/ shi(32.1%), 신 shin(84.9%)/ sin(14.2%), shim(60.6%)/ sim(38.8%)). 이는 ‘신’을 <sin>으로 표기할 시 영어의 어감이 좋지 않아 모음 ‘ㅣ’ 앞에서는 <sh>로 표기하기 때문일 것이다. ‘강’의 경우 <kang> (98.1%)이 <gang>(1.2%)보다 압도적인 것은 gang의 의미가 영어에서 좋지 못한 뜻을 지녔기 때문이며 ‘국’의 경우 <kook>(54.2%)이 <gook>(4.4%)보다 우세한 것은 gook이 영어에서 동양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9) 이러한 예에는 나 ra, 낭 lang, 노 roh/ro, 양 ryang/lyang, 유 ryu, 이 lee/rhee/

<g>보다는 <k>로 표기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예: 견, 경, 콧, 권, 기, 길, 김) 거의 절대적이며 <g>로 표기하는 경우는 미미하다.<sup>10)</sup> 반면 어두자음 ‘ㄷ, ㅂ, ㅈ’으로 시작되는 성씨는 <d, b, j>로 표기하고 ‘ㅌ, ㅍ, ㅊ’은 <t, p, ch>로 표기하는 편이 우세하다.

### 3. 인명의 로마자 표기 시 고려 할 점

#### 3.1. 성과 이름의 순서, 띄어쓰기, 대문자표기

한글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성을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 하는 것이며(예: Mohng Ryohng Lee, Lee Mohng Ryohng), 둘째, 이름의 두 음절을 붙여서 쓰느냐 아니면 분리하여 적느냐 하는 것이며(예: Mohng Ryohng, Mohngryohng) 이때 분리하는 경우 이름 사이에 하이픈을 넣어서 분리하느냐 아니면 그냥 분리하느냐 하는 것이며(예: Mohng Ryohng, Mohng-Ryohng), 하이픈을 넣은 경우에 각 음절을 대문자로 쓰느냐 아니면 첫 번째 음절만 대문자로 하고 하이픈 다음의 음절은 소문자로 쓰느냐 하는 것이다(예: Mohng-Ryohng, Mohng-ryohng). 또한 붙여서 적는 경우 음절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의 음절을 대문자로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sup>11)</sup> (예: MohngRyohng, Mohngryohng)

---

ree, 임 lim/rim/leem/rhim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인명표기에서는 ‘나/라, 낭/랑, 노/로, 양/량, 유/류, 이/리, 임/림’은 각각 구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 하지만 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이 아닌 다른 모음 앞에서 ‘ㄱ’을 <g>로 표기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가(ga 21.7%), 간(gan 25.5%), 갈(gal 41.2%), 감(gam 14.0%), 고(go 10.2%), 공(gong 17.5%), 구(gu 11.3%), 궁(gung 10.0%), 근(geun 50%)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11)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문관부(2000)의 제3장 제4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고의 목적인 성과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또한 성과 이름의 표기를 달리하여야 하느냐 같아야 하느냐 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에 의하면 성씨 표기만 따로 정하여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름 표기는 현행표기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표기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성과 이름을 달리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재고하여야 하며 성과 이름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 3.2. 로마자 표기의 목적, 정의, 주체성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로마자표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원래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던 언어가 로마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경우는 그 언어의 특징과 목적에 따라 표기하는 방식이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로마자는 라틴어를 적는 데는 그만이지만, 그 밖의 언어를 적는 데는 음운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양병선(2002)에서 필자는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던 언어가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목적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자국의 문자 언어로 자국인 끼리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나 로마자 사용 언어권의 외국인과의 편리상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로서 1954년에 제정된 일본의 내각고시안<sup>12)</sup>, 두 번째는 철자법은 통일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의 방언 및 지역어가 사용되고 있어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지역어간의 발음을 통일시키기 위해 로마자를 이용하는 언어로서, 1958년에 제정된 중국어의 한어병음표기(Pinyin), 세 번째는 자국의 기존의 문자를 완전히 로마자로 바꾸는 경우로서 중세이후 로마자를 사용하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과 최근의 예로서는 1928년 제정, 공포된 터키의 로마자표기, 네 번째는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인공적으로 로마자를 이용하여 만든 언어로서 IPA나 인공언어(artificial language)인 에스페란토어(LA LINGVO INTERNACIA)등 특수 목적을 위한 로마자표기가 있다.

이 중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목적은 중국어나 터키어(영어 등 로마자 채택언어 포함), 또는 IPA나 에스페란토어의 로마자표기와는 다르다. 특히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제1의 목적은 현재와 같은 국제화시대에 한글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과의 의사 소통 시 자신의 이름을 외국인에게 알리기 위한 표기이다. 즉 한글 이름을 완전히 로마자로 바꾸기 위한 것(터키어의 64개 언어의 경우)도 아니며 읽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 이를 표기하기 위한 것(중국어의 경우)도 아니며, IPA처럼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예 중에서 일본어의 경우가 한글의 로마자표기의 목적에 가장 근접하다 할 수 있으며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 시 기준언어를 어떤 로마자표기로 하여야 하는 것은 한글의 음운구조와 기준언어의 음운구조를 비롯한 제 현상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sup>13)</sup>

12) 일본어의 로마자표기는 모음은 5개로 비슷한 이탈리아/스페인어의 모음표기를 따랐으며 자음은 영어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유만근 2000, 김복문 1996).

13)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본어와 한글의 음운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

§2.2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인명표기를 할 시 영어를 염두에 두고 표기한다. 즉 일반인들은 자신의 인명표기의 로마자표기는 영자표기라는 인식 하에 표기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로마자표기법은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표기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를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언어의 주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로마자표기는 한글의 표기체계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도형수 1992)는 점 때문이었으며, 둘째는, 로마자는 영어만 사용하지 않으며 로마자 표기는 영어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기준으로 한 표기는 영어 철자식 표기법(이현복 1998:13)은 될지언정 로마자표기가 아니라는 점(이익섭 1997, 권재일 2000)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에게서 훌륭한 문자인 한글이 있으며, 우리의 성씨와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터키의 경우처럼, 우리의 한글을 없애고 대신 로마자로 바꾸는 것이 아닐 것이다.<sup>14)</sup> 따라서 우리 언어의 주체성을 살리는 길은 로마자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64개 언어 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 표기하는 길이며 이 기준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한글 사용자의 몫이며 우리 언어의 주체성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

다는 점이다. 첫째는 모음의 수에서 두 언어간에 차이가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일본어의 음절구조는 CV구조인 반면 한글의 음운구조는 (C)V(C)로 다양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어의 경우는 112개의 적은 음절을 이용하여 110,000개가 넘는 성씨를 표기한다. 반면 한글의 음절수는 철자단위로 최대 11,172개이며 음운단위로 최대 3,192개이다. 따라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의 모음자를 만 일본어표기법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i) 음운의 수가 한글과 비슷하며 ii) 21세기 세계어, 과학, 기술언어로서의 로마자 사용언어 중 가장 많은 국가인 104개국에서 508,000,000명이 모국어 또는 제2국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국제언어로 인정을 받고 있고 iii) 국내에서는 제1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고 있는 영어를 기준으로 (양병선 2000) 로마자표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14) 이현복(1988:4)에 의하면 “필자는 인터넷으로 나라 안팎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말로 통신을 할 때 상대가 우리말을 아는 경우, 한글이 아닌 로마자표기법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 이런 경우 모아쓰기를 하는 한글표기의 자료보다는 풀어쓰기를 하는 로마자표기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편리한 면이 있는 것이다”. 만일 모든 한국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로마자를 사용한다면 모아쓰기 하는 한글은 풀어쓰기를 하는 로마자표기로 바뀔 것이며, 결국 터키어의 경우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Endangered Language Fund의 회장인 Douglas Whalen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약 6,800개 정도이며 인터넷의 발달과 국제화의 영향으로 언어의 반 정도는 100년 안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로마자표기가 풀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한글대신 사용된다면 100년 안에 한글이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라틴어문자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 시 영자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로마자로 표기한다는 것이 영어로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외에도 수십 여 종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현복 1998:13, 김혜숙 2000:439, 이익섭 1997: 6-7, 권재일 2000) 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고려할 점은 로마자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며 영자는 로마자가 아닌가 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로마자는 라틴문자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라틴인이 라틴어를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자로서 라틴어에서 사용되던 라틴문자 23자를 로마가 에트루리아를 항복시킨 후 서유럽을 정복함으로써 로마인들에 의해 사용되면서 로마자라 불려졌으며 서방세계에 널리 전파되었고 로마제국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유럽에서 언어(특히 음성언어)의 특성에 따라 자국의 문자표기대신 로마자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sup>15)</sup> 이러한 와중에 언어마다 새로운 알파벳을 고안하거나 첨가하여 자신들의 문자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로마자를 채택한 언어는 각각 독자적인 글자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즉 원래의 의미의 로마자는 라틴어에서 사용하던 글자를 의미하며 이 로마자는 로마 교황청이나 학술연구에만 사용되고 있는 사어가 되어 버린 지 오래이며(Grimes 2000) 이탈리아어는 이탈리아문자, 영어는 영자, 스페인어는 스페인문자, 터어키어는 터어키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로마자란 용어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일 뿐 현재는 라틴어에서 사용되던 로마자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논의에서는 로마자란 로마자를 이용하고 있는 64개 언어를 총칭하는 문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글자가 있는 것처럼 전제를 함으로서(이익섭 1997: 각주 1) 로마자표기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의 발음과 철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자로 표기하는 <한글을 영어 알파벳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법> 즉 <(한)국어의 영자표기법> 이라고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영

15) 이러한 현상을 Romanization 혹은 Latinization이라 하며, 이탈리아어는 éëííóóúú, 독일어는 äöü, 프랑스어는 àèâçéëîïüù, 스페인어는 áéíñóú, 포르투갈어는 áâãäçéëèëííóóóóúú, 덴마크어와 노르웨이어는 åæø, 스웨덴어는 åäö, 핀란드어는 äö, 폴란드어는 ąęłńóśź, 알바니아어는 çë, 루마니아어는 âîșț 등의 특수기호를 이용한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공언어인 에스페란토어조차도 특수기호인 ĉĝĥĵŝŭ를 사용하고 있다. 단지 영어만이 이러한 특수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A-Z까지 26자만을 이용하여 표기하고 있다(세계의 문자 연구회 1997: 191-192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어알파벳을 이용한 표기도 Romanization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어 알파벳 26자만을 이용하여 국어를 표기하는 ‘국어의 영자 표기법 (Englishization)’으로 명기하여 모호성과 애매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

#### 4. 영어의 발음 및 철자의 규칙성

로마자 표기를 영자발음과 철자 기준으로 하는 국어의 영자표기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대다수의 반론은 영어의 철자와 발음과의 무원칙성에 기인한다(유만근 2000). 예로써, 영어의 경우 “u를 어느 한 가지 소리로 고정해서 읽지 않고 bus, cut, sun 등에서는 [어]로 읽다가 Bush, put 에서는 [우]로 읽고 fuse에서는 [유]로 읽는다.” (권재일 2000) “현대 영어 철자에서 모음 글자는 600년 전 영어 발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요새 발음과 너무나 어긋나고, 그나마 철자와 발음간에 1:1로만 대응되는 일이 전혀 없다.<sup>16)</sup> 가령 철자상 a 또는 o는 음가가 각각 열 가지가 넘으며, 두 글자를 합친 ou도 그 이상으로 다른 소리가 난다....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같은 모음을 적는 철자가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것이다. 가령 쪽정모음(schwa)을 적는 영어 철자는 무려 40가지가 넘는다. ... 영어 모음 글자 발음 형편이 이러하므로 누구라도 로마자 표음법을 고안할 때는 (모의 발음법 범례 경우를 제외하면) 영어 모음 표기식은 언제나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유만근 2000)

19세기 이전까지 수세기동안 문법학자들은 영어의 철자법이 1글자 1소리 (one-letter-one-sound)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어의 철자법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20세기초에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대두되면서 음소와 이음소, 음절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설득력을 잃어버렸으며 특히 20세기 중반에 Chomsky와 Halle의 생성음운론에 의해 morphophonemes (underlying phonological representation)와 feature 개념, 그리고 stress와 같은 초분절음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영어의 철자법이, 다른 언어에 비해 복잡하지만 체계적이라는

16) Wijk(1977)에 의하면 영어의 음운은 모음 21개 자음 25개 총 46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표기하는 방법은 알파벳 26자를 이용한 102 표기법이 있다고 하였다. Dewey(1971:8)에 의하면 자음 23개의 표기방법은 219개, 모음 17개의 소리를 표기하는 방법은 342개로서 총 40여 개의 소리를 561개의 다른 spelling으로 표기한다고 주장했으며 /ə/의 표기법은 무려 43가지나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영어의 철자법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Sir Thomas Smith가 1568에 최초로 제안한 이래 최근의 The American Language Academy의 American Spelling(Rondthaler, et. al. 1986)까지 다양한 철자법이 지난 400년 동안 제안되어 왔다(Scragg 1974: 93).



타나는 모음자 표기는 총 42가지이다. 모음자 <a, e, i, o, u>를 이용한 1음절어는 <a> 422개, <e> 258개, <i> 414개, <o> 248개, <u> 286개로서 이 가운데 모음자로 끝나는 것(개음절)은 전체 1음절어 중 0.03% 정도이며 99.7%가 자음자로 끝나며(폐음절) 다음과 같은 발음과 철자간의 규칙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병선(투고 중) 참조).

- (1) 모음자 <a>는 음절말에서는(개음절) /a/ (국어의 ‘ㅏ’)로 발음되며(100%) 뒤에 자음이 나올 경우에는 /æ/(국어의 ‘ㅓ’)로 발음된다(84%)<sup>18)</sup>
- (2) 모음자 <e>는 음절말에서는 /iy/ (국어의 ‘ㅣ’)로 발음되며(75%)<sup>19)</sup> 폐음절에서는 /e/ (국어의 ‘ㅔ’)로 발음된다(99.9%)
- (3) 모음자 <i>는 폐음절에서는 /i/ (국어의 ‘ㅣ’)로 발음되나(95%) 개음절에서는 /ay/(국어의 ‘아이’) 또는 /iy/ (국어의 긴 ‘ㅣ’)로 발음된다<sup>20)</sup>
- (4) 모음자 <o>는 음절말에서는 /ow/ (국어의 ‘ㅜ’, 70%) 또는 /uw/ (국어의 ‘ㅜ’, 30%)로 발음되며, 폐음절의 경우에는 73%가 지역에 따라 /a/ 혹은 /ɔ/로 다양하게 발음된다.<sup>21)</sup>
- (5) 모음자 <u>는 개음절에서는 /y)uw/로 발음되며(100%) 폐음절에서는 /ə 혹은 ʌ/로 발음된다(94%)<sup>22)</sup>

이 이외에도 2문자(diagraph)를 이용하여 모음을 표기하는데 <ah>는 음절말에서만 나타나며 항상 /a/로 발음되고 <oh>는 /ow/로 발음되며 개·폐음절 모두에 나타나고, <ee>는 모두 /iy/로 발음되고<sup>23)</sup> <oo>는 일반적으로 /uw/ 또는 /u/로 발음되고<sup>24)</sup> <aa>는 영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18)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시 폐음절의 경우 ‘ㅏ’를 <a>로 표기하는 것은 재고하여야 하며 오히려 <a>는 ‘ㅓ’의 표기로 사용되어야 한다.

19) 따라서 개음절의 ‘ㅔ’의 표기를 <e>로 표기하는 것은 [iy]로 발음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20) 따라서 폐음절에서는 ‘ㅣ’를 <i>로 표기하여야 하나 개음절에서 ‘ㅣ’를 <i>로 표기하는 것은 ‘아이’로 발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하여야 한다.

21) 음절말에서 fro, go, ho, jo, lo, no, pro, rho, so, wo는 /ow/(국어의 ‘ㅜ’)로 to, who, two, do는 /uw/(국어의 ‘ㅜ’)로 발음되며 폐쇄음의 경우 총 234개 1음절어 중 172개(73%)는 지역에 따라 /a/혹은 /ɔ/로 발음되며 (예: bob, job, sob, chop, ox, top, box 등), 자음 <l>앞에서는 주로 /ow/로 발음되나 /u, a/로 발음되기도 하며 <m>앞에서도 /ow, uw, a, ə/로 다양하게 발음된다. 또한 <n>앞에서도 /a, ə/로 발음된다. 따라서 국어의 ‘ㅜ’를 단순히 <o>로 표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변함없이 ‘ㅜ’로 표기되는 다른 표기법(즉 <oh>)을 선택하여야 한다.

22) 따라서 개음절에서는 ‘ㅜ’를 <u>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폐음절에서는 ‘ㅜ’를 <u>로 표기하여야 한다.

23) 따라서 개음절의 경우 ‘ㅣ’의 표기는 문제가 있는 <i>보다 <ee>로 표기하도록 한다.

24) 예외로는 blood, flood (/ʌ/)만이 있을 따름이다. 현대 한국인은 /uw/와 /u/를

아프리카어의 차용어(예: aardvark, aardwolf, kraal, laager)나 독일어 차용어(Saar), 희랍어 이름(Aaron) 또는 Yiddish 단어(meshugaas)등에서 <aa>가 사용되며 Aaron(/æ/)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a/로 발음된다(Venezky 1999:191).<sup>25)</sup> 반면 <oe>는 일반적으로 /ow/로 발음되며 <ae> /ey/로 발음되고<sup>26)</sup> <eu>는 <ew>와 같은 쌍으로서 <ew>가 모음 앞이나 어말에서 나타나는 반면, <eu>는 자음 앞에서 나타나며 /(y)uw/로 발음된다.

영어의 자음은 2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표기는 영어알파벳 22자를 이용하여 1자 표기(single letter) 22개, 2문자 표기(diagraph) 12개(ch, gh, kh, ng, ph, rh, sh, th, ck, dg, gn, wh), 3문자(trigraphs) 표기 4개(sch, pph, rrrh, tch)가 있다. 자음자는 모음자에 비하여 영어알파벳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음에 비하여 발음-철자의 관계가 간단하다. 이 중 국어의 로마자표기에 필요한 자음자는 <b, d, g, h, j, k, l, m, n, p, r, s, t, y> 이 있으며 이들의 음가는 알파벳과 동일하다. 2문자표기 <ch, gh, kh, ng, ph, rh, sh, th, ck, wh>는 각각 /f, g, k, ŋ, f, r, f, θ, k, hw/의 음가를 나타낸다.<sup>27)</sup>

음소로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oo>는 국어의 모음자 ‘ㅜ’의 소리와 같은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ㅜ’의 표기는 <oo>로 한다.

25) 또한 영자표기 수정안을 제시한 여러 안 중 Palaeo-type에서 <aa>로 표기하자고 주장한 이후 Glosso-type(1869), Glossic (1870), Dimidium (1880), Simplified Spelling(1911), S. S. Readers (1915), Easy Spelling (1929), Anglic (1930)에서 /a/를 <aa>로 표기하자는 제안되었으며(Zachrisson 1970: 48), Regularized English(Wijk 1977), New Spelling (MacCarthy 1969), Simplified Alternative Spelling(Rondthaler, Edward, et. al 1986)에서도 꾸준히 /a/를 <aa>로 표기토록 제안되어 왔다. 따라서 한글의 ‘ㅜ’의 표기를 <aa>로 표기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26) 외래어 차용어인 Gaelic, maelstrom (Dutch), Phaedre(Greek), 이름 Mae에서는 /ey/로 발음되나 Latin어 maenad는 /i/, 이탈리아 maestro에서는 /ai/로 발음된다(Venezky 1999: 191). 하지만 Norman Conquest 이후에 프랑스어에 영향을 받아 사용하게 된 고대영어 표기 <eo>는 eon, leon, neon, peon의 예가 있으며 /iya/('이아')로 발음된다. 이 이외에도 jeopardy(/e/), leopard(/e/), people(/iy/), yeoman(/ow/), escutcheon, luncheon, puncheon, truncheon(/ʌ/)등 다양하게 발음된다. 따라서 국어의 ‘ㅜ’를 <eo>로 표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27)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g>는 <ir>을 제외한 모음자 <e, i, y>앞에서는 /j/로 발음되며 <ir, a, o, u>앞에서는 /g/로 발음된다(하지만 geld, gelt, get, gimp, gilt, gig, gift, gear의 경우는 /g/로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국어의 ‘김, 기, 길’ 등과 같이 ‘ㅣ’모음 앞에 ‘ㄱ’의 표기는 <k>로 표기한다. 3문자표기 <tch>는 15세기에 <chch>를 대체하기 위하여 영어에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Tchaikobsky, Tchebycheff(러시아), Tchambuli(파푸아), tchotchke(Yiddish)등의 외국어의 차용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ㅈ’의 표기는 <jj>대신 <tch>로 표기하는 것이 다른 경음의 표기와 비추어 일관성이 있는 표기인 듯하다.

## 5. 영어철자 및 발음 기준 한자 인명 로마자 표기

한자인명용 로마자표기는 1음운 1기호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지 않고 1음절 1표기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는 음절단위 로마자표기법(양병선 2000, 2001)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5.1. 모음 표기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음자 <a, e, i, o, u>중 <o>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자는 뒤에 자음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æ, e, i, u/로 발음된다. 반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a, u>가 /a, u/로 확실히 발음되는 것을 제외하고 <e, i, o>는 어느 한 발음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 시 폐음절인 경우에 ‘해, 헤, |, |’를 각각 <a, e, i, u>로 표기한다. 기타 모음표기는 영어의 2 모음자(diagraph)를 따라 표기한다. ‘ㅏ’는 <aa>로 표기한다.<sup>28)</sup> ‘ㅑ’를 <o>로 표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ㅑ’는 ‘oh’로 표기하고<sup>29)</sup> ‘ㅓ’의 표기는 항상 /uw/로 발음되는 <oo>로 표기한다. 단 <oo>로 시작되는 단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웅, 옥, 운’ 등은 모두 <woo>로 표기한다.<sup>30)</sup> ‘ㅡ’와 ‘ㅣ’ 그리고 개음절에서 ‘ㅓ’의 표기는 각각 <eu, oe, ae>로 표기한다.<sup>31)</sup>

28) 중세영어에서는 현재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처럼 장모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음 위에 짧은 줄 (macron)을 사용하였다가 후에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같은 모음을 두 번 사용함으로써 장모음을 표시하였다. 장, 단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현대국어의 특징과 <a, e, o>가 ‘해, 헤, |’에 사용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ㅏ’의 경우 개음절에서 <ee>로 표기하며 ‘ㅑ’는 <aa>로, ‘ㅓ’는 ‘oo’로 표기한다. ‘ㅓ’의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a>로 줄여서 표기하는 방안도 있으나 표기의 단순화를 위해 폐음절, 개음절 모두 <aa>로 표기한다.

29) 개음절에서는 ‘ㅑ’를 <o>로 표기하는 방안도 있으나 ‘도, 토’를 ‘do, to’로 표기하면 ‘두, 투’로 달리 발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oh>로 표기한다.

30) 개음절에서 ‘ㅓ’의 표기를 <u>로 표기하는 방안도 있으나 i) 성씨표기시 대다수가 <u>의 표기보다는 <oo>를 선호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2.1 참조), ii) 다른 음절이 연이어 표기될 경우 혼동하여 ‘ㅓ’로 읽힐 염려가 있으며, iii) 표기의 단순화를 위해 달리 표기하기보다는 폐음절과 같이 <oo>로 표기한다.

31) 이들 모음은 영어에서 유사한 표기를 찾기가 힘든 표기이다. 왜냐하면 영어에 이와 유사한 모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i) 지금까지 꾸준히 제안되고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ii) 고대영어와 프랑스어에서 사용하던 ligature Ææ Œœ 가 발음기호 ‘해’와 ‘ㅣ’의 발음 기호 /æ, ø/와 유사하며 iii) <eu, oe, ae>는 각각 /yjuw/, /ow/,

‘ㄱ, ㄴ, ㅋ’의 개음절은 각각 항상 /ʌ, iy, e/로 발음되는 <uh, ee, eh>로 표기한다.<sup>32)</sup>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아, 어, 오, 우, 이, 애, 예, 으, 외’는 각각 <ah, uh, oh, woo, yee, ae, eh, eu, oe>로 표기한다. 위에서 언급한 단모음의 표기를 음절의 특성에 따라 개음절(음절초에 자음으로 시작하며 모음으로 끝나는 글자), 폐음절(음절초에 자음으로 시작하며 받침이 있는 글자), 그리고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을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면 ‘표 1’과 같다. 이중모음은 단모음을 기준으로 하여 반모음인 y, w를 조합하여 ‘표 2’와 같이 표기한다. 단 ‘ㄴ’의 경우는 한자인명표기의 경우에 ‘의, 회’에서만 나타나는데 ‘회’는 [히]로 발음되므로 <hee>로 표기하도록 한다.

표 1. 단모음의 로마자 표기

단모음	개음절	폐음절	모음
ㅏ	aa	aa	ah(아)
ㅑ	uh	u	uh(어)
ㅓ	oh	oh	oh(오)
ㅜ	oo	oo/woo	woo(우)
ㅣ	ee	i	yee(이)
ㅞ	ae	a	ae(애)
ㅟ	eh	e	eh(어)
ㅡ	eu	eu	eu(으)
ㅝ	oe	oe	oe(외)

표 2. 이중모음의 로마자 표기

이중모음	개음절	폐음절	모음
ㅑㅏ	yaa	yaa	yah(야)
ㅑㅑ	yuh	yu	yuh(여)
ㅓㅓ	yoh	yoh	yoh(요)
ㅠ	yoo	yoo	yoo(유)
ㅞㅞ	yae	ya	yae(애)
ㅟㅟ	yeh	ye	yeh(예)
ㄴ	ui/ee	ui	ui(의)
ㅑㅓ	waa	waa	wah(와)
ㅑㅑ	woh	wo	woh(워)
ㅑㅟ	wae	wa	wae(왜)
ㅑㅟ	weh	we	weh(웨)
ㅑㅣ	wee	wi	wee(위)

/ey/로 발음되어 외국인인 빨리 발음하면 한국인은 ‘ㅡ, ㅝ, ㅞ’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eu, oe, ae>로 표기한다.

‘ㅞ, ㅟ, ㅑ’의 표기를 <ai, oi, eo>로 표기하는 방안이 있으나 <ai>표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oi> /oy/로 발음되며 <eo>는 주로 /iya/로 발음되기 때문에 원음과 너무 동떨어진 표기법이기에 문제가 있다. 또한 김복문(1996)에서처럼 ‘ㅝ’를 <weh>로 표기하는 방안은 소리가 근접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중모음 ‘ㅑ’을 <ooeh>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단모음 ‘ㅑ’와 이중모음 ‘ㅑ’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다른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연관성과는 달리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32) 이는 §4에서 언급하였듯이 i) 모음자 <e>는 음절말에서 /iy/ (국어의 ‘ㅣ’)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eh>로 표기하며 ii) 모음자 <i>는 음절말에서 /ay/로 발음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음절말에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따르기에 <ee>로 표기하며 iii) 모음자 <u>는 개음절에서는 /(y)uw/로 100% 발음되기 (예: flu, gnu, mu, nu, thru)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uh>로 표기한다.

## 5.2. 자음 표기

자음표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은 음절초에 나타나는 폐쇄음(ㄱ, ㄴ, ㅋ; ㄷ, ㄸ, ㅌ; ㅂ, ㅃ, ㅍ)과 파찰음(ㅈ, ㅊ, ㅉ)의 표기이며 한글의 표기방식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인식에 따라 ‘ㄱ, ㄷ, ㅂ, ㅈ’을 <g, d, b, j>로 표기하고 ‘ㅋ, ㅌ, ㅍ, ㅊ’을 각각 <k, t, p, ch>로 표기하는 방안과 음성을 중심으로 유, 무성음을 인식하는 영어권 외국인의 인식에 따라 ‘ㄱ, ㄷ, ㅂ, ㅈ’을 <k/g, t/d, p/b, ch/j>로 표기하고 ‘ㅋ, ㅌ, ㅍ, ㅊ’을 각각 <k’/kh, t’/th, p’/ph, ch’/chh> 방안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 약점 중의 하나는 영어에서 <th>는 /θ/(혹은 /ð/)로 발음되어 외국인이 발음 시 ‘ㅅ’ 혹은 ‘ㅆ’으로 잘못 인식 할 수가 있으며 <ph>는 /f/로 발음되어 국어의 ‘ㅍ’과는 사뭇 다른 소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문관부(2000)처럼, 폐쇄음과 파찰음의 경우에 영어사용자 외국인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에 대한 인식보다는 한국인의 인식을 따라 ‘ㄱ, ㄷ, ㅂ, ㅈ’을 <g, d, b, j>로 표기하고 ‘ㅋ, ㅌ, ㅍ, ㅊ’을 각각 <k, t, p, ch>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초에서 ‘ㄱ’의 경우 연구개음인 /g/가 전설모음 /i/ 앞에서 경구개음화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음 ‘ㅣ’ 앞과 이중모음 앞의 ‘ㄱ’은 <k>로 표기토록 한다.<sup>33)</sup> 그리고 음절초에 나타나는 ‘ㄴ’은 <kk>로 표기한다. 폐쇄음과 파찰음이 한자 인명의 받침에 나타나는 경우는 ‘ㄱ, ㅂ, ㅈ’ 뿐이며 각각 <k p t>로 표기한다.

음절초에서 ‘ㅅ’은 <s>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y/ 앞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 ‘ㅅ’은 <sh>로 표기한다 (예: ‘시, 신, 심’은 ‘shee, shin, shim’).<sup>34)</sup> ‘ㅆ’은 <ss>로 표기한다. ‘ㄹ’의 표기는 음절초에서는 <r/l>로 표기하되 전설모음

33) 이는 i) 영어의 경우 <g>는 <ir>을 제외한 모음자 특히 <i, y>앞에서는 /j/로 발음되는 현상이 있어 ‘ㅈ’으로 발음될 염려가 있으며 ii) 인명에서 사용되는 음절 중에서 ㅈ/ㅊ, ㄷ/ㅌ, ㅂ/ㅍ의 경우는 구별된 인명표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ㄱ/ㅋ의 구별된 음절은 ‘꽤/꽤’뿐이며 iii) 영어의 경우 gy-뒤에는 항상 자음인 l, m, n, p, r, t, v 만 뒤따르지 국어의 이중모음처럼 모음이 뒤따르지 않으며 iv) 문교부(1984)안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서 성씨표기에서 거의 ‘ㄱ’이 표기가 <k>로 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34) 이러한 이유는 i)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sh>로 표기되는 경구개 치경 마찰음 /ʃ/는 국어의 음소에는 없는 소리이지만 영어의 /ʃ/ 소리는 국어의 /s/ (즉 ㅅ) 이 구개음화 될 때 나는 변이음과 같으며 (예: shift, shil, shim, shin, ship, shit, shim) ii) 이러한 변이음은 ‘ㅅ’이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l’모음 앞과 받침에서는 <l>로 표기하고 기타모음(즉 후설모음)앞에서는 <r>로 표기한다. 즉 라 raa 랑 raang 량 ryaang 로 roh 룡 ryohng 류 ryoo 룝 ryook 등으로 표기하는 반면 리 lee 린 lin 림 lim으로 표기한다. ‘ㄱ, ㄴ, ㅇ’은 각각 <m, n, ng>로 표기한다. 인명표기에 사용되는 자음표기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자음의 로마자 표기

자음	한글	음절초	음절말(받침)
	ㄱ, ㅋ, ㆁ	g/k, k, kk	k
파열	ㄷ, ㅌ	d, t	t
	ㅂ, ㅍ	b, p	p
파찰	ㅈ, ㅊ	j, ch	t
마찰	ㅅ, ㅆ, ㅎ	s/sh, ss, h	t
비음	ㅁ, ㄴ, ㅇ	m, n, ø	m, n, ng
유음	ㄹ	l/r	l

위에 제시한 영어철자 및 발음을 기초한 인명용 표기법은 언어학적인 배경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 모두에게 교육하기에도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것은 언어학자 및 전문가를 위한 한자인명의 로마자표기를 위한 원칙일 뿐이다. 언어학적 배경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 없이 <부록 1>에 제시한바와 같이 A4용지 1장에 표기할 수 있는 ‘영어철자 및 발음에 기초한 인명에 사용되는 한글음절 482자’(\$2.1 참조)의 표기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글의 글자만 이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표기라 할 수 있다. 일반인용 한자이름의 음절별 로마자표기를 제시하면 <부록1>과 같다.

## 5. 결론

본고는 i) 한자 인명의 특징과 로마자 표기실태를 분석하여 인명의 로마자 표기가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였고, ii) 로마자표기의 목적, 정의 주체성 등 인명표기 시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 iii) 영어 1음절어에 나타난 음절구조에 따른 발음과 철자에 대한 규칙성을 제시하여 한자인명로마자 표기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iv) 영어의 발음과 철자를 기준으로 하여 음절구조에 따른 인명용 표기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따라 언어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이름과 성씨에 사용되는 482개 음절단위 로마자표기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인명 로마자표기를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성씨표기 뿐만 아니라 이름 표기도 같은 원칙에 의해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성의 표기만을 따로 정하기로 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의 제3장 4항(2)과 인명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명시한 제3장 제7항을 수정하여 현행 로마자표기(문관부 2000)는 지명 및 문화재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일반인용 인명표기에 관한 로마자 표기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명로마자표기의 통일이 곧 국어의 로마자표기를 통일시키는 지름길이며 우리 한글을 지키며 우리의 언어주체성을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인명로마자표기가 현재처럼 혼란스럽게 각양 각색으로 표기된다면 우리의 언어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6).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료집*.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권재일. (2000). 설득, 이해, 실천의 의지. *새국어생활*, 10(4).
- 김복문. (1996). *한일로마자 표기의 비교연구*. 서울: 무역출판사.
- 김세중. (2001). *성씨의 로마자 표기 시안*. 성씨의 로마자 표기 공청회 발표 논문.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미출판물.
- 김혜숙. (1998). 한국인명의 로마자 표기 순서 및 표기 양상. *사회언어학*, 6(1), 89-111.
- 김혜숙. (2000). 주요로마자 표기법에 입각한 한국인의 성 표기 문제점: 영어에 근거한 발음 및 의미. *사회언어학*, 8(1), 415-443.
- 도형수. (1992). *한글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교부. (1948). *한글을 로마자로 적는 법*. 미출판물.
- 문교부. (1959).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미출판물.
- 문교부. (1984). *대한민국 주요지명의 로마자 표기 용례집*. 서울: 문교부
- 문화관광부. (2000). *로마자표기 용례사전*. 서울: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 서정수. (1991). 우리말 이름의 로마자 표기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1), 101-113.
- 세계문자연구회. (1997). *세계의 문자* (김승일 역). 서울: 범우사
- 양병선. (2000). 한국 인명 로마자 표기법 연구: 음절단위 국어의 영자표기

- 법. *대한언어학회간 언어학*, 8(3), 281-302.
- 양병선. (2001). 번역으로서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연구: 음절단위 영자표기법. *대한언어학회 간 언어학*, 9(3), 25-50.
- 양병선. (2002). 성씨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제언.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간 인문과학연구*, 7, 157-195.
- 양병선. (준비중). 우리말 고유어 이름 로마자표기에 관한 연구.
- 양병선. (투고중). 영어의 철자와 발음의 규칙성 및 활용방안: 영어 1음절어를 중심으로. *대한영어영문학회 간 영어영문학연구*, 29(3).
- 유만근. (2000). 종전 로마자 표기법의 이론과 실용상 문제점. *새국어생활*, 10(4).
- 이익섭. (1997). 로마자 표기법의 성격. *새국어생활*, 7(2), 5-26.
- 이현복. (1998). 로마자 표기법의 실상과 허상. *한국어표기법 연구회 논문집*, 1, 1-38.
- 정경일. (1997). 한국인명의 로마자표기 양상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39, 1-16.
- 정경일. (1999). 독립신문의 로마자표기방식. *한국어학* 9, 259-84.
- 정경일. (2001).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의 인식과 교육 실태. *이중언어학* 18, 303-322.
- 정희원. (2000). 새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 *새국어생활* 10(4).
- 조선과학원. (1956). 로마 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에 관한 일반적 규칙. 조선어 및 조선문화연구소
- Albrow, K. H. (1972). *The English Writing System: Notes Towards a Description*. London: Longmans.
- Bregelmann, F. (1970). *The English Language: An Introduction for Teach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Carney, E. (1994). *A Survey of English Spelling*. New York: Routledge.
- Cummings, D. W. (1988). *American English Spelling*.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ewey, G. (1971). *English Spelling: Roadblock to Read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 Gibson, E.J., Osser, H., Schiff, W., & Smith, J. (1963). *A Basic Research Program on Reading*.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639. Ithaca, NY: Dept. of Psychology, Cornell University.
- Grimes, B. F. (ed.). (2000). *Ethnology: Languages of the World, 14th edition*.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Hanna, P. R., J. S. Hanna, R. E. Hodges, and E. H. Rudorf, Jr. (1966). *Phoneme-Grapheme Correspondences as Cues to Spelling*

- Improvement*. Washington, D.C.: GPO.
- Hanna, P. R., R. E. Hodges and J. S. Hanna. (1971). *Spelling: Structure and Strategie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Hockett, C. F. (1963). Analysis of English Spelling. in Gibson, E.J., Osser, H., Schiff, W., & Smith J. (ed.) *A Basic Research Program on Reading*. Ithaca, NY: Dept. of Psychology, Cornell University.
- MacCarthy, P.D.A. (1969). New Spelling with Old Letters. in ed. by W. Haas. *Alphabets for English*.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cCune, G. M. and E. O. Reichauer. (1939). Romanization of Korean Language. *The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9, 7-8.
- Rondthaler, E. and E. J. Lias. (1986). *Dictionary of American Spelling*. New York: The American Language Academy.
- Sampson, G. 1985.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Approach*. London: Hutchinson.
- Scragg, D. G. (1973). *Spelling*. London: Andre Deutsch.
- Scragg, D. G. (1974). *A History of English Spelling*.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tubbs, M. (1980). *Language and Literacy: The Sociolinguistics of Reading and Writ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Vachek, J. (1973). *Written Language: General Problems and Problems of English*. The Hague: Mouton.
- Venezky R. L. (1970). *The Structure of English Orthography*. The Hague, The Netherlands: Mouton.
- Venezky R. L. (1999). *The American Way of Spel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ijk, A. (1977). *Regularized English*.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 Zachrisson, R. E. (1970). *Anglic: An International Language with a Survey of English Spelling Reform*. College Park: McGrath Publishing Company.

## &lt;부록 1&gt;

## 영어철자와 발음을 기초한 한자이름의 로마자 표기: 영어음절단위 표기

인명용 한자 4,794자(호적법 시행규칙 제 37조)에 사용되는 한글음절 482자

가 gaa 각 gaak 간 gaan 갈 gaal 감 gaam 갑 gaap 강 gaang 강진 gaangjun 개 gae 객 gak 갱 gang 각 kyaak 거 guh 건 gun 걸 gul 검 gum 겁 gup 게 keh 격 kyuk 견 kyun 결 kyul 겸 kyum 경 kyung 계 kyeoh 고 gok 곡 gohk 곧 gohn 골 gohl 공 gohng 곳 goht 과 kwaa 곱 kwaak 관 kwaan 괄 kwaal 광 kwaang 꽤 kwae 괴 goe 꿩 goeng 교 kyoh 구 goo 국 g/kook<sup>35)</sup> 군 goon 굴 gool 궁 goong 꺾 kwok 권 kwon 꺾 kwol 켜 kweh 귀 kwee 규 kyoo 균 kyoon 굴 kyool 극 geuk 근 geun 글 geul 금 geum 급 geup 궁 geung 기 kee 긴 kin 길 kil 김 kim 꺾 kkik 나 naa 낙 naak 난 naan 날 naal 남 naam 남궁 naamgoong 납 naap 낭 naang 내 nae 너 nyuh 년 nyun 녀 nyum 녀 nyung 노 noh 농 nohng 뇨 nyoh 누 noo 눈 noon놀 nool 너 noe 뉴 nyoo 능 neung 니 nee 닉 nik 다 daa 단 daan 달 daal 담 daam 답 daap 당 daang 대 dae 맥 dak 덕 duk 도 doh 독 dohk 독고 dohkgoh 돈 dohn 돌 dohl 동 dohng 동방 dohngbaang 두 doo 둔 doon 득 deuk 등 deung 라 raa 락 raak 란 raan 랄 raal 랍 raam 랑 raap 랑 raang 래 rae 랭 rang 락 ryaak 량 ryaang 려 ryuh 력 ryuk 련 ryun 렬 ryul 렬 ryum 렬 ryup 령 ryung 레 ryeh 로 roh 록 rohk 론 rohn 룡 rohng 뢰 roe 료 ryoh 룡 ryohng 루 roo 류 ryoo 룩 ryook 룬 ryoon 룰 ryool 룡 ryoong 룩 reuk 름 reum 룡 reung 리 lee 린 lin 림 lim 립 lip 마 maa 막 maak 만 maan 말 maal 망 maang 망절 maangjul 매패 mae 맥 mak 맵 mang 먹 myuk 먼 myun 멀 myul 명 myung 메 myeoh 모 moh 목 mohk 몰 mohl 몽 mohng 료 myoh 무 moo 목 mook 문 moon 물 mool 미 mee 민 min 밀 mil 박 baak 반 baan 발 baal 방 baang 배 bae 백 bak 번 bun 벌 bul 범 bum 법 bup 벽 byuk 변 byun 별 byul 병 byung 보 boh 북 bohk 본 bohn 불 bohl 붕 bohng 부 boo 북 book 분 boon 불 bool 붕 boong 비 bee 빈 bin 빙 bing 사 saa 사공 saagohng 삭 saak 산 saan 살 saal 삼 saam 삽 saap 상 saang 쌍 ssaang 새 sae 색 sak 생 sang 서 suh 서문 suhmoon 석 suk 선 sun 선우 sunwoo 설 sul 섬 sum 섭 sup 성 sung 세 seh 소 soh 소봉 sohbohng 속 sohk 손 sohn 술 sohl 송 sohng 쇠 shae 쇠 shoe 수 soo 숙 sook 순 soon 술 sool 송 soong 슬 seul 습 seup 승 seung 시 shee 씨 ssee 식 shik 신 shin 실 shil 심 shim 십 ship 아 ah 악 aak 안 aan 알 aal 압 aam 압 aap 앙 aang 애 ae 액 ak 앵 ang 야 yaa 약 yaak 양 yaang 어 uh 어금 uhgeum 억 uk 언 un 얼 ul 엄 um 업 up 엔 en 여 yuh 역 yuk 연 yun 열 yul 염 yum 엽 yup 영 yung 예 yeh 오 oh 옥 ohk 온 ohn 올 ohl 올

35) '국'을 제시한 표기법에 의해 표기하면 gook이 된다. 하지만 gook은 영어에서 동양인을 비하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국'의 경우는 성씨에 한해 kook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김혜숙(2000)에서는 성씨의 표기 중 영어에서의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로마자표기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으며 심사위원중의 한 분도 'gook' 이외의 어감이 이상한 표기를 지적하였다. 이 중 '국'만을 성씨에 한해 달리 표기하기로 한 것은 성씨의 경우 '국'의 표기가 <gook>(4.4%)에 비해 <kook>(54.2%)으로 표기하고 있는 현실(김세중 2001)을 고려한 것이며 특히 동양인인 한국인이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의미를 지닌 표기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ohng 와 wah 완 waan 왈 waal 왕 waang 왜 wae 외 oe 요 yoh 옥 yohk 용  
yohng 우 woo 옥 wook 운 woon 울 wool 응 woong 윈 won 월 wol 위 wee 유  
yoo 욱 yook 윤 yoon 율 yool 용 yoong 은 eun 을 eul 음 eum 읍 eup 응 eung 의  
ui 이 yee 익 yik 인 in 일 il 임 im 입 ip 잉 ing 자 jaa 작 jaak 잔 jaan 잠 jaam  
잡 jaap 장 jaang 장곡 jaanggohk 재 jae 쟁 jang 저 juh 적 juk 전 jun 절 jul 점  
jum 집 jup 정 jung 제 jeh 제갈 jehgaal 조 joh 족 johk 존 john 졸 johl 종 johng  
좌 jwaa 죄 joe 주 joo 죽 jook 준 joon 줄 jool 중 joong 즉 jeuk 즐 jeul 즈 jeup  
증 jeung 지 jee 직 jik 진 jin 질 jil 짐 jim 집 jip 징 jing 차 chaa 착 chaak 찬  
chaan 찰 chaal 참 chaam 창 chaang 채 chae 책 chak 처 chuh 척 chuk 천 chun  
철 chul 침 chum 침 chup 청 chung 체 cheh 초 choh 축 chohk 춘 chohn 충  
chohng 활 chwaal 최 choe 추 choo 축 chook 춘 choon 출 chool 충 choong 퀘  
chweh 칩 chwee 측 cheuk 측 cheung 지 chee 칩 chik 진 chin 칠 chil 침 chim  
chip 칭 ching 께 kwae 타 taa 탁 taak 탄 taan 탈 taal 탐 taam 탐 taap 탕 taang  
태 tae 택 tak 탕 tang 터 tuh 토 toh 통 tong 퇴 toe 투 too 특 teuk 파 paa 판  
paan 팔 paal 패 pae 팽 pang 팍 pyaak 편 pyun 뽀 pyum 평 pyung 폐 pyeh 포  
poh 폭 pohk 표 pyoh 품 poom 풍 poong 피 pee 필 pil 뽀 pip 하 haa 학 haak 한  
haan 할 haal 함 haam 합 haap 향 haang 해 hae 핵 hak 행 hang 향 hyaang 허  
huh 헌 hun 헐 hul 험 hum 혁 hyuk 현 Hyun 혈 hyul 험 hyum 협 hyup 형 hyung  
혜 hyeh 호 hoh 흑 hohk 혼 hohn 흘 hohl 흥 hohng 화 hwaa 확 hwaak 환 hwaan  
활 hwaal 황 hwaang 황보 hwaangboh 회 hoe 획 hoek 횡 hoeng 효 hyoh 후 hoo  
훈 hoon 흥 hoong 흰 hwon 휘 hweh 휘 hwee 휴 hyoo 홀 hyool 흥 hyoong 흑  
heuk 혼 heun 흘 heul 흠 heum 흡 heup 흥 heung 희 hee 힐 hil

양병선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전주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영미언어문화전공

전화: (063) 220-2213

E-mail: bsyang@jeonju.ac.kr

Received: 10 October, 2003

Revised: 27 October, 2003

Re-revised: 7 November, 2003

Accepted: 19 November, 2003